

# 전북교육박물관 건립 힘 모은다

### 도교육청-군산시, 교육협력 협약... 원도심 근대문화유산 바탕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힘 보태기로

전북교육청과 군산시가 (가칭)전북교육박물관 건립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서거석 교육감과 강임준 시장은 2일 박경희 군산교육장과, 김미정 군산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 기관은 미래지향적인 군산 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군산시에 교육분야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두고, 시청과 군산교육지침의 연계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원도심의 다양한 근대문화유산을 바탕으로 근대시민정신 체험학습벨트 조성 및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군산시 중앙로 옛 군산초등학교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전북교육박물관은 전북의 교육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전시·보존·연구하는 동시에, 학생과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역사 체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강 시장은 "재민금 시대 군산의 발전과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큰 만큼,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협력체계 구축은 의미가 크다"면서 "군산 아이들이 각자의 재능과 꿈을 실현하고, 지역도 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과 강임준 군산시장은 2일 박경희 군산교육장과, 김미정 군산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서 교육감은 전북 경제의 심장은 군산이라며,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군산시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교육감은 협약 체결 후 군산교육지원청에서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주제로 학부모 특강을 한 뒤, 군산 청소년자치배움터 '자몽'과 군산 청소년수련관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 현안을 살폈다.

이날 교육은 조리종사자들의 폐암 발생 등 급식실 작업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증기, 가스, 냄새, 연기 등을 외부로 배출하는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학교 시설 개방 확대 노력”

### 서 교육감, 군산시의회 의원들과 정책간담회

서거석 교육감이 2일 군산시의회 의원들과 지역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서 교육감은 군산시의회 사회실에서 박경희 군산교육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열어 학교 시설 개방 등 여러 현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경식 의원은 "어떤 학교는 토요일과 휴일에 운동장을 개방하는데, 화장실이 없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학교 측이 시설 개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은식 의원은 "학교 운동장을 활용해 우수주류시설을 설치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주문했고, 김경구 의원은

"학생들의 체구를 감안하면 의자가 너무 작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김영일 의장과 설경민 의원은 폐교 활용과 관련해 "지자체와 협의해 보다 적극적으로 폐교 활용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창호 의원은 "아이들의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면서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양재우 의원은 "군산 동부권이 커지면서 서부권이 작아지고 있다"면서, 동부권으로의 학교 이전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날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 시설 개



서거석 교육감은 2일 군산시의회 사회실에서 박경희 군산교육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연 뒤, 의원들과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방과 관련해 "취임 이후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시설 개방을 권고했지만, 학생안전관리 등으로 부담을 느끼는 학교도 있다"면서 "학교 시설 개방 확대를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의원들과의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갖게 돼 기쁘다"면서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들이 앞으로 군산 지역 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 나는 꿈꾸는 요리사... 하림 주최 요리경연 18·25일

### 도내 고교생 대상... 10일까지 모집

전북지역 내 고교생들의 재능 발굴과 직업설계를 위한 요리경연대회가 열린다.

전북대학교 전라제주권 교육기부지원센터가 주관하고 (주)하림이 주최하는 제5회 '나는 꿈꾸는 요리사' 요리 경연대회가 오는 18일 1차 기획안 작성과 25일 요리경연으로 나눠 개최된다.

이에 따르면 18일 하림에서 열리는 1차 경연에서는 전문가 특강을 비롯해 각 조별로 수행할 요리에 대한 기획안을 미리 작성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25일 전주대 본관에 위치한 국제한식조리학교에서 열리는 본경연에서는 각 조별로 요리를 수행하고, 플레이팅 등의 점수를 더

해 우수자에 대한 시상도 이어진다.

한편, 주최 측은 이번 대회에 참여한 도내 고교생 10개팀(2인 1조)을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이메일(jedu@jnu.ac.kr)을 통해 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전북대학교 전라제주권 교육기부 지원센터(063-219-5678)로 하면 된다.

## 올 교육활동 중심 학교 운영 방안 찾으려

### 도교육청,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정책·수업 개선 등 10일까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2년 교육활동 중심 학교 운영(학교업무최적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 현장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교육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이다.

또한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정책은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운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공모에는 도교육청 소속의 교원·지방행정직·교육공무원 등 모든 교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 기

간은 오는 10일까지다.

공모분야는 △정책 및 법령개정 △수업 및 교육활동 개선 △행정업무 개선 △갈등관리 △기타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공모를 희망하는 교직원은 전북도교육청 홈페이지-공모전-신청하기 순으로 접속해 제안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이후 도교육청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한편, 심사기준은 실시가능성(30),

창의성(20), 효율성 및 효과성(20), 적용범위(15), 계속성(15) 등 100점 만점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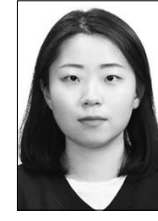
한공수 정책공보관은 "이번 공모전은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교육활동 중심 학교 운영을 위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교직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정은성 기자

손 씻기·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 주세요

## 항암 나노입자 개발 '화제'

### 전북대 송난희 대학원생 연구 논문

### 영국왕립학회 발행 국제 학술지에 게재



전북대학교 바이오나노융합공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송난희 대학원생이 암 세포사멸을 유도하고, 항암 면역반응을 증진시키는 나노입자를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송 대학원생의 이 연구는 영국왕립학회에서 발간하는 저명국제 학술지인 Biomaterials Science 11월 호에 게재됐다.

이에 따르면 암세포는 활성산소를 많이 생성하는 생물학적 특성을 갖고 있는데, 암 세포 내의 활성산소를 생성하는 동시에 항산화작용을 억제하면 산화스트레스를 증폭해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암세포의 산화스트레스가 증가하면 항암 면역반응을 증진시키는 면역원성 세포사멸을 유도한다.

특히 '산화스트레스를 증폭시키는 이합체 전구약물 나노입자를 이용한 면역원성 유도 항암 치료'라는 제목의 이번 논문은 활성산소를 생성하는 동시에 세포 내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을 제거함으로써 산화스트레스를 증폭시켜 세포사멸을 유도함과 동시에 항암면역성을 증진시키는 나노입자 개발에 성공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송 대학원생은 "이 연구개발을 통해 산화스트레스를 제어하는 전구약물 나노입자가 종양 표적 항암치료 약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후속 연구를 통해 이번 성과가 상용화 돼 방사선 및 항암약물과 병행하는 항암 치료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첨단방사선융합치료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정은성 기자

##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 이해 교육 실시

### 도교육청, 본청 시설·급식담당 등 80여명 대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일 본청 시설담당, 급식담당, 교육지원청 시설 및 급식 업무담당자, 노조 관계자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 이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조리종사자들의 폐암 발생 등 급식실 작업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증기, 가스, 냄새, 연기 등을 외부로 배출하는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고용노동부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 연구책임자로 활동한 창원대학교 환경공학과 하현철 교수가 강사로 참여했다.

하 교수는 △환기시스템 진단평가 및 개선계획 수립 방법 △급식실 환기 가이드 △급식실 환기 개선·현대화

사제·급식실 설계 방법 등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답변을 들려줬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은 " 그동안 궁금했던 환기설비의 설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음으로써 조리실 개선 설계 등 현장 적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환기설비 TF를 구성·운영하고, 조리실 환기설비 전문 점검을 통한 실태 파악으로 환기설비 개선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급식종사자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제공을 위해 학교 작업환경에 맞는 급식조리실 환기설비의 개선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면서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아프리카 지역 장학금 지원 공로 인정

### 원광대 만민동참보은장학회, 감사패 수여받아



원광대학교(총장 박병수) 만민동참보은장학회가 (사)아프리카 어린이돕는모임(이하 어린이돕는모임) 25주년 기념사에서 인정한 공로로 인정을 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만민동참보은장학회는 학교 사랑을 위한 특별기도에 동참한 교수들을 중심으로 1998년 창립 장학기금을 조성해 왔으며, 지금까지 원광대 교직원들이 십시일반 출연해 재학생을 비롯해 원광대학 재학생과 남아프리카 및 네팔의 꿈나무들에게까지 장학금을 지원했다.

매년 이천만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지원한 만민동참보은장학회는 올해도

대인학교, 아프리카 어린이, 이주민센터, 원불교 포카리교당, 삼동안터내셔널 등에 보은장학금을 전달했다.

시상식은 지난달 29일 (사)아프리카 어린이돕는모임 25주년 기념사에서 진행됐으며, 단체 수상은 원광대 만민동참보은장학회가 유일하게 수상했다.

3대 회장을 맡고 있는 경영학부 박성태(사진) 교수는 "무엇든 배움과 나눔을 통해 거듭날 수 있고, 진정한 평등과 자유를 얻을 수 있으며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다"며, "가난 때문에 차이가 고착되고 차등이 대물림돼 악순환하는 사회구조는 우리가 작은 정성을 모아 바꿀 수 있다"고 밝히면서, "뜻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배울 수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발휘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서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국회축제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원광대학교(총장 박병수) 법학전문대학원이 최근 열린 제19회 천만송이 국회축제로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상담을 진행한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는 재학생이 변호사로 활동하기 전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체험하고, 봉사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도

덕성 함양과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명과 현직 변호사 2명이 함께 했으며, 상담자들은 "법적으로 궁금한 일이 있을 때 변호사 사무실밖에 생각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원광대 리걸클리닉센터에 연락하면 될 것 같다"며 고마움을 표했다.